

MAGNUM

한불수교 140주년 특별전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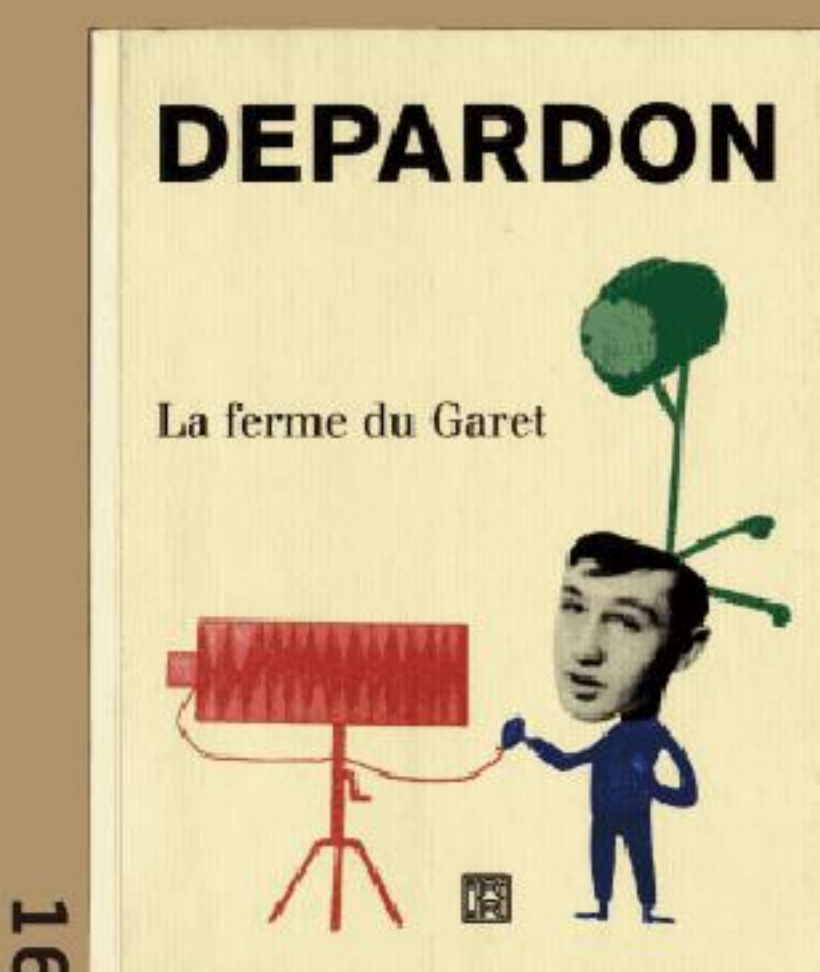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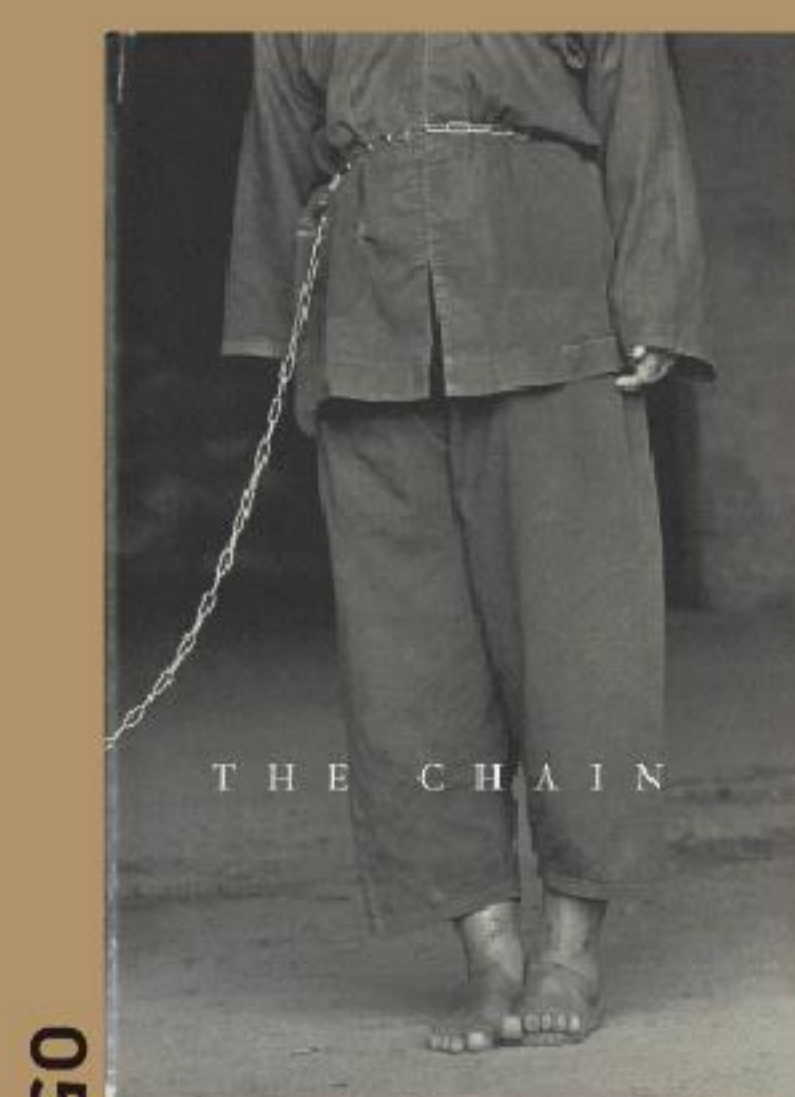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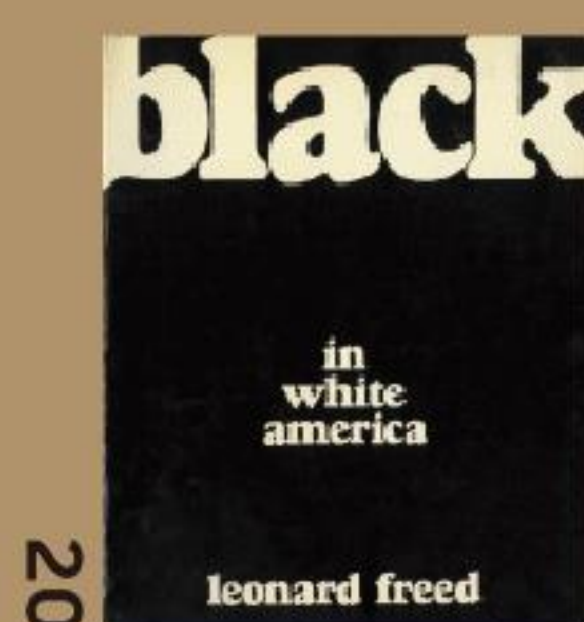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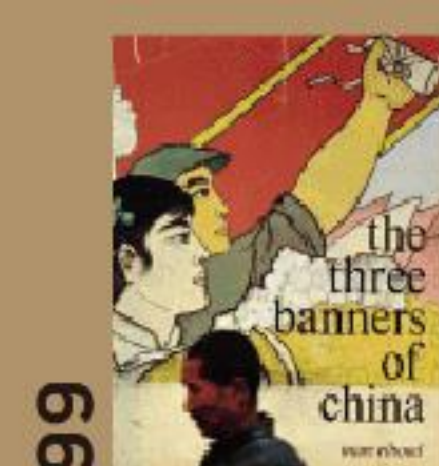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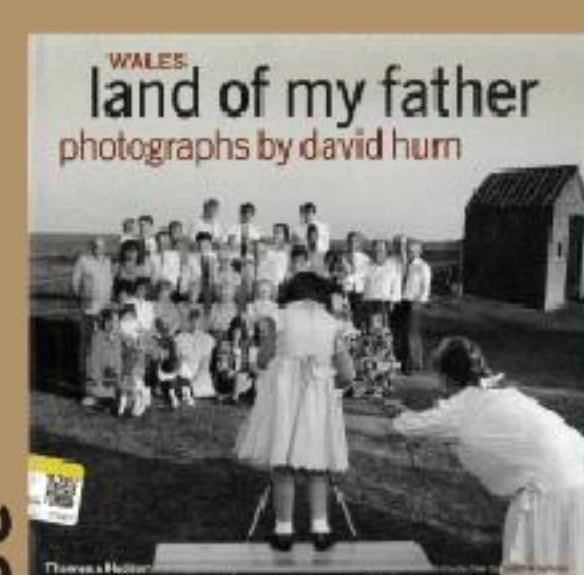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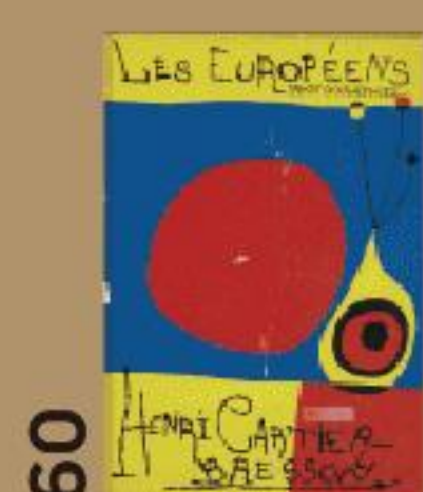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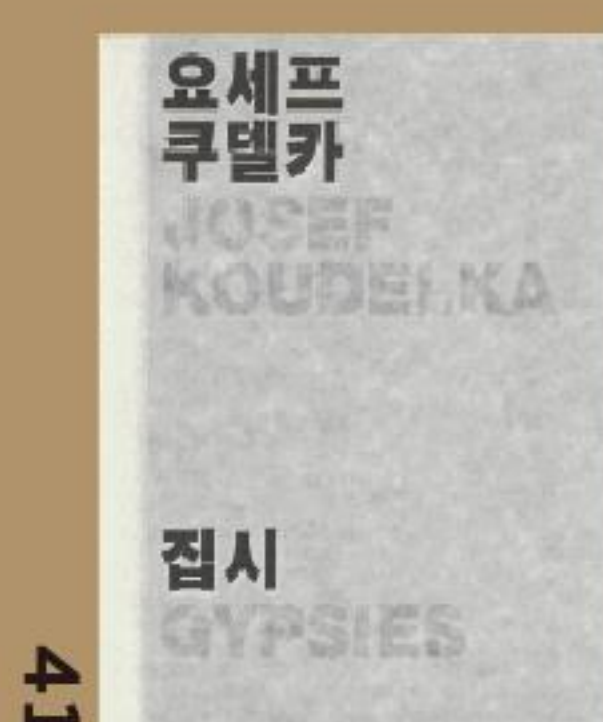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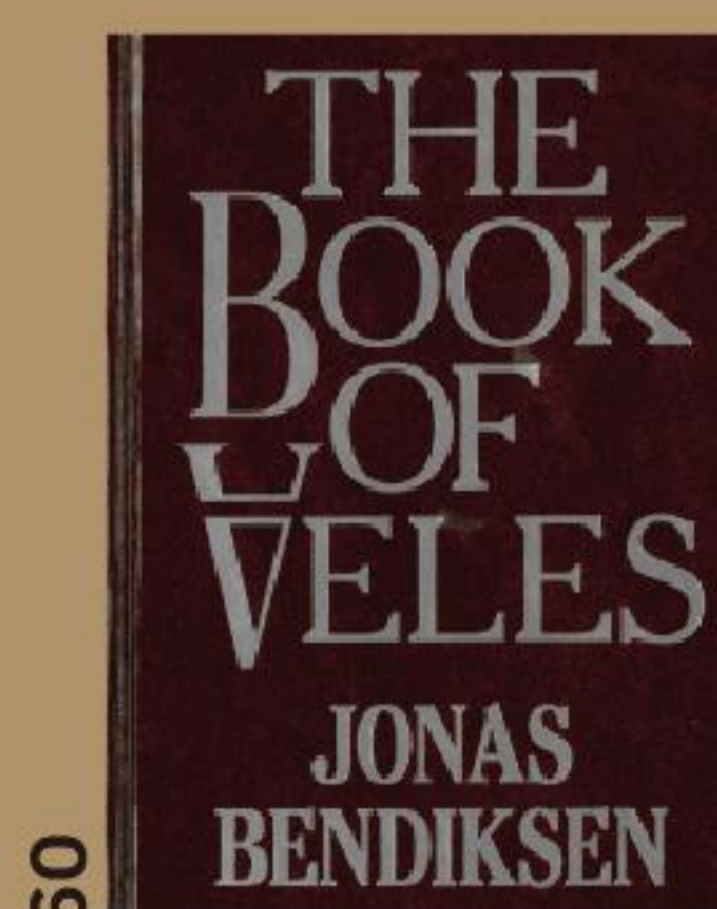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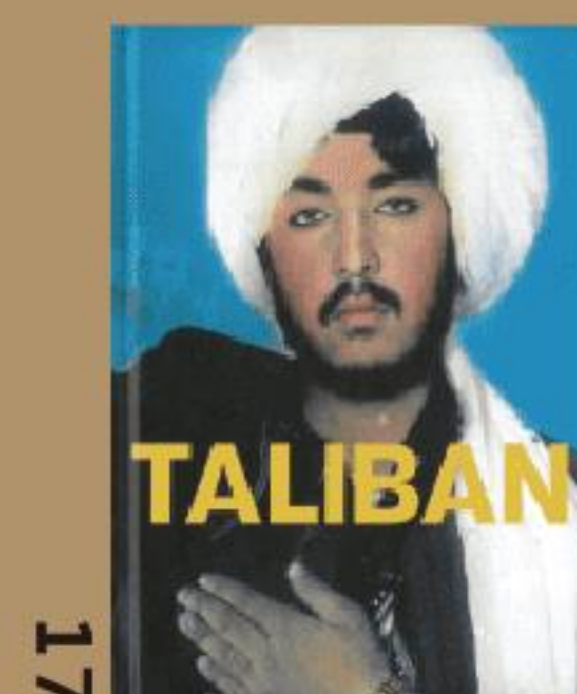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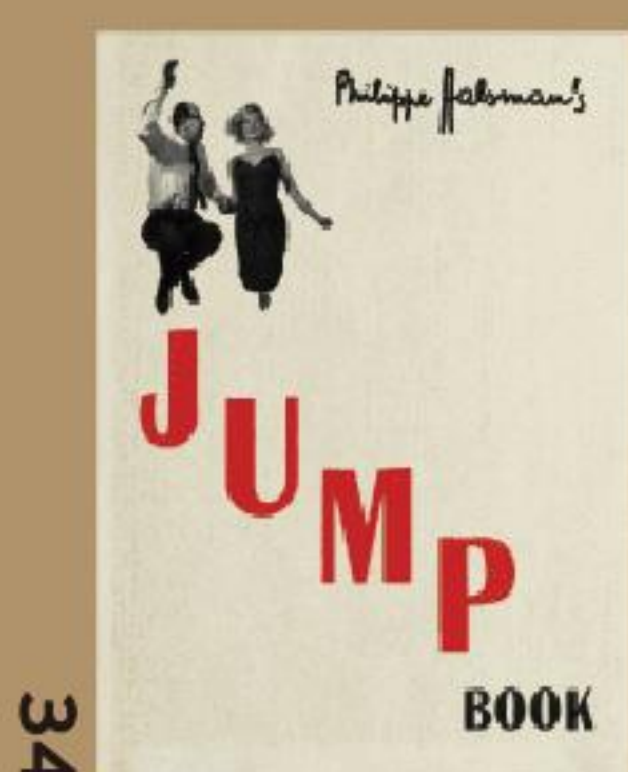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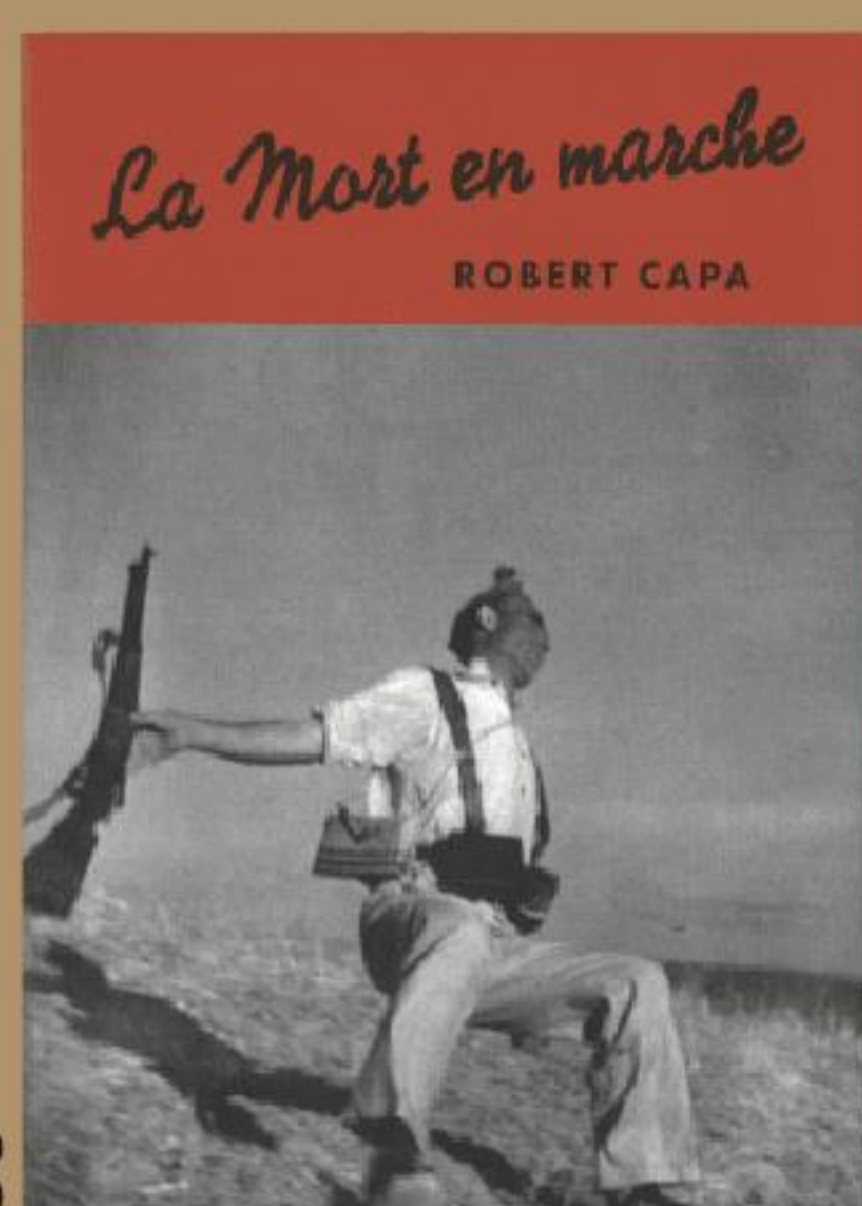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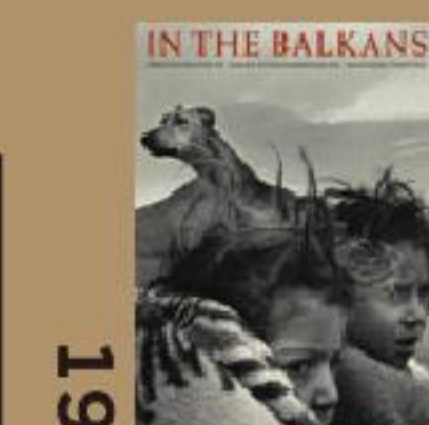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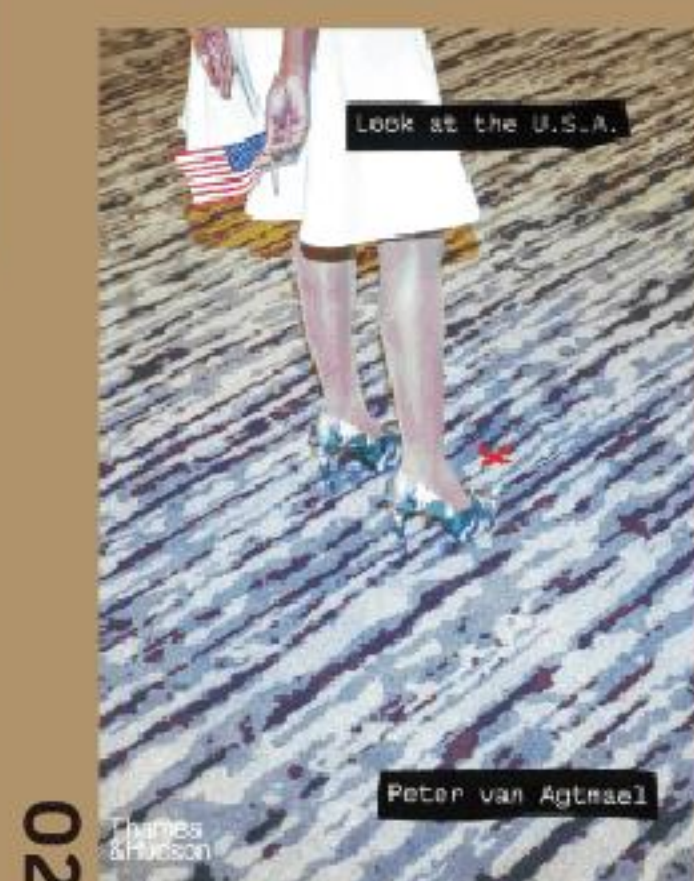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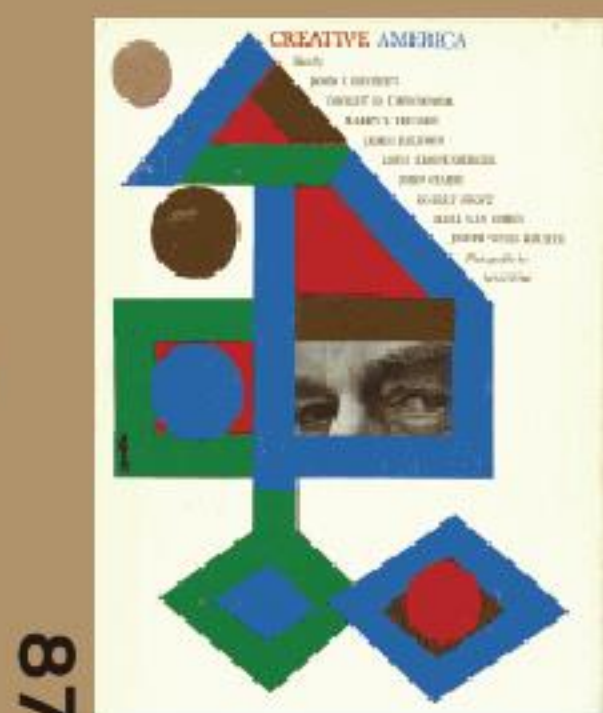
BETWEEN

Selected Photobooks by
Magnum Photographers 1943-2026

PAGES

1943-2026

2026.8.14.-
10.11.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

MUSEUM
HANIMI
뮤지엄한미 삼청

MAGNUM

AMBASSADE
DE FRANCE
EN RÉPUBLIQUE
DE CORÉE
Liberté
E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해외작가초대전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Jardins de Claude Monet, Giverny, Normandie, France, 2018-2021
© Jean Gaumy/Magnum Photos



Audrey Hepburn, 1955
© Philippe Halsman/Magnum Photos



A Magnum Photos meeting, Paris, France, 1950
© Werner Bischof Estate/Magnum Photos

MAGNUM BETWEEN PAGES 1943- 2026

2026.8.14. - 10.11. 상설갤러리, 5갤러리

스페셜 리셉션 2026. 9. 17.(목) 17:30

《Magnum Between Pages 1943-2026》은 1947년 창립된 세계적인 사진가 협동조합 Magnum Photos의 사진가들이 제작한 98권의 포토북을 통해, 지난 80여 년간 매그넘이 구축해 온 시각적 서사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안동문화예술의전당과 뮤지엄한미가 공동 주관하고, 뮤지엄한미와 매그넘포토스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파리, 런던, 뉴욕 매그넘 사무소의 포토북 라이브러리에 소장된 주요 포토북들과 작가 60여명의 작품을 엄선해 소개한다. 또한 개별 포토북 뿐만 아니라 더미북 (dummy book), 플랜 시트(plan sheet), 그리고 작품 원본까지, 포토북 제작 전후의 맥락을 가늠할 수 있는 아카이브와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는 이를 통해 사진가들이 각자의 시대와 현장에서 포착한 시선과 문제의식을 어떻게 편집과 배열, 서사 구조로 확장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포토북이 단순한 사진집을 넘어, 사진가 고유의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사유를 담아내는 독립적인 창작 매체로 발전해온 과정을 함께 조명한다.

매그넘? 매그넘!

Magnum은 '크다' 또는 '샴페인을 담은 큰 술병'을 뜻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 명의 창립자, 앙리 카르티에브레송(1908-2004), 로버트 카파(1913-1954), 조지 로저(1908-1995), 데이비드 사이무어(1911-1956)는 이름처럼 샴페인으로 창립을 축하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가 협동조합인 매그넘 포토스를 설립했다. 지난 80여년간 매그넘 사진가들은 포토북을 통해 다큐멘터리 사진과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경계를 확장하며, 이 매체의 진화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매그넘 각 사무소에 조성된 포토북라이브러리는 사진가, 직원, 연구자들이 지식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지적 교류의 공간이자, 창작의 기반이 되어왔다.

전시연계프로그램 <북앤티크 Book n Talk> 2026. 9. 17.(목) 15:30

참여자

- Jean Gaumy 장 고미 (매그넘 포토스 소속 사진가)
- And era Holzherr 안드레아 홀츠헤르 (매그넘 포토스 글로벌 총괄 디렉터)
- 모더레이터: 김선영 (뮤지엄한미 학예연구관)

전시 큐레이터와 참여 작가가 함께 사진작품과 포토북, 전시라는 서로 다른 형식과 공간을 넘나들며 매그넘 작가들의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독자와 관객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참여 작가 중 장 고미가 내한해 최근 출간한 『A Certain Nature, After Giverny』 사진집의 제작과정 소개)